

4 » 착공 시작하는 SPACE21 안전문제 점검	6 » 연재기획:대학원의 위기, 해답을 모색하다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안내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기간 : 3월 2일(월) 10:30~3월 6일(금) 18:00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3월 9일(일) ~ 수강신청학점 취소 : 3월 9일(월) 10:30~3월 13일(금) 18:00

정량평가 시뮬레이션, 3개 항목 평균이하 제도 개선 못지 않게 구성원 협조 필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목전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대학구조개혁 정량평가 지표 중 전임교원 강의비율, 강의규모, 취업률 등 3개 지표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타대학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학생분포가 포함된 4개 지표가 평균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학생성적 분포는 부작용이 나타나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월 대학본부가 실시한 정량평가 시뮬레이션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예체능 중심대학을 제외한 170여개 대학의 정량지표 항목의 평균수치를 우리 학교의 수치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없는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지급률 항목은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대학평가 자료를 활용했다.

이럴 경우 가장 높은 A 등급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A 등급을 받기 위해선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를 맞아야하기 때문이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다른 지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임교원 강의비율, 강의규모, 취업률 항목은 타대학 평균에 다소 못 미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의 3개년 평균은 46.7%다. 이는 조사 대상 대학의 평균값 5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은 “타 대학에 비해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가 연간 12시간으로 낮은 편”이라며 “타 대학은 책임강의시수를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는 연간 12시간에 인대 비해, 규모가 비슷한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책임강의시수는 15시간, 중앙대는 트랙별로 12시간~15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남 원장은 “강의시수가 적다는 것은 연구에 좀 더 전념해달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우리학교의 연구실적이 타대학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낮다는 것은 비전임 교원의 증가와 이로인한 재정부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도 줄어드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남 원장은 “교수님들에게 학교 사정을 감안해 책임강의시수보다 많은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개선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3개년 자료를 사용하는 교육부의 평가방법으로 볼 때 의미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취업률은 2012년 54.7%를 기점으로 2013년엔 52.5%를 기록해, 계속 하락세에 있다. 2014년도 취업률도 50.6%로 대학 전체 평균 54.8%에 미치지 못한다.

평가 지표에는 제외됐지만 성적 분포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중 학점관리현황 작성공식으로 산출된 우리학교의 성적분포 값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맴돌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3면으로 이어짐

대학구조개혁 정량지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항목	전국대학 평균	우리학교	
전임교원 확보율	68.9%	<	69.68%
교육비 환원율	176.1%	<	179.5%
전임교원 강의비율	58.8%	>	46.7%
강의규모	31.3%	>	30.9%
시간강사 보수수준	4만6,300원	<	5만1,300원
학생성적 분포	38.9%	>	31.4%
장학금 지급률	18.4%	<	20.3%
신입생 충원율	98.5%	<	99.1%
재학생 충원율	102.7%	<	114.3%
취업률	50.3%	>	49.7%
교사 확보율	100% 기준치	<	140.2%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 평가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생성적분포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해 평가항목에서 제외됨.

우리학교 및 경쟁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15시간 학부 12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시간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창간 60주년 대학주보
100년의 틀을 새로 만듭니다
종이신문 넘어 ‘모바일퍼스트’를 지향합니다

1955년 5월 12일, 1호를 낸 대학주보가 올해 5월 12일, 창간 6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학주보의 60년은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1984년 모든 신문이 세로쓰기를 고집할 때 대학주보는 가로쓰기를 택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1996년, 대학신문 최초로 컬러지면을 도입했습니다. 보다 미려한 디자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03년, 대학생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색연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형 베를리너 판형을 도입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2015년 60주년을 맞이하는 대학주보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종이신문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뉴스 부문의 강화를 축으로 한 ‘모바일퍼스트’를 지향합니다. 변화하는 독자의 뉴스 소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종이신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바탕위에서 뉴스 소비의 주요 통로가 되어가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통 채널을 구축해 매일 매일 독자들께 찾아가는 대학주보로 거듭 날 것입니다.

2015년은 먼저 대학주보가 전하는 매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모바일퍼스트’를 가능케 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합니다.

디지털뉴스 부문을 강화합니다

대학주보 뉴스는 매일 작성되고 온라인을 통해 매일 전달됩니다.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뉴스 유통 채널 강화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주 3회 발행 : 주간 1~2회 발행되어온 이메일 뉴스레터를 주 3회(월, 수, 금)로 확대·전달합니다.

소셜미디어(SNS) 강화 : 대학신문 중 가장 활발한 소셜미디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뉴스 전달은 물론 독자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CMS 강화 :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독자의 기사 이용 흐름을 분석하고 ‘보고 싶은 기사’를 좀 더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주보 종이신문 발행주기를 격주간으로 조정합니다

발행주기를 격주간으로 전환합니다. 종이신문은 학내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게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중심으로 제작됩니다. 매일 전달되는 디지털 뉴스 중에서도 독자의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 아이템을 보다 긴 호흡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대학주보 매거진, 매거북 형태로 발행합니다

대학주보 매거진은 단일 주제를 대상으로 깊게 탐구하는 매거북(magabook) 형태로 전환합니다. 대학주보는 이미 2011년 1월 우리학교의 디자인과 UI, 상징물을 주제로 매거북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5~6개의 주제를 가지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는 대학주보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운과 불행이라는 자매: 《열반경》 이야기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김종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리들 대부분은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즐거움이 가득한 충족된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구조는 충족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얼굴이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느 부유한 이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의 주인이 기뻐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행운의 여인이라 합니다. 나는 찾아가는 곳마다 그 집에 부귀와 행운을 불러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



《열반경》은 세상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은 그 여인을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 조금 후에 또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못생기고 몸이 더러웠으며,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불행의 여인이라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불행을 불러 오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들고 나오면서 외쳤다.

“씩 물러가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 이렇게 주인이 떠벌들자, 그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군요. 조

금 전에 당신 집에 찾아 온 이는 내 언니예요. 나는 항상 언니와 행동을 같이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결국 내 언니도 따라 나가게 될 것이요.”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행운의 여인에게 물었다. “밖에 어떤 여인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내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나는 늘 동생과 같이 행동하였고, 한 번도 서로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면
〈편집장〉 권오은(언론정보학 2009)
〈보도팀장〉 김윤철(국제학 2010)
〈여론팀장〉 정용재(경영학 2010)

명
〈편집장〉 백승철(정치외교학 2011)
〈부편집장〉 최승욱(전자전파공학 2014)
〈정기자〉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박기윤(경영학 2014)
방누리(식품영양학 2014)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위자현(스페인어학 2014) 조재신(한국어학 2011)

의원면직
〈정기자〉 이재은(경영학 2014)
〈수습기자〉 장미영(언론정보학 교환학생)